



## 오늘의 말씀 - 금 (출 5:15-6:1)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 본문 이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하고, 우리를 때리는 것은 당신의 백성의 죄라고 호소하니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을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짚은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원들은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

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서 아뢰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 적용

모세는 화가 나서 자신을 저주하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자기가 끼어들어서 백성들에게 고통만 가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이런 난감한 일을 당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따지듯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  
이다.” (22-23)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과 원망을 조금도 나무라지 아니  
하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  
내리라.” (6:1)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때, 즉각적인 해결을 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모세가 준비되는데 8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은, 때도 방법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  
다. 그러므로 때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하  
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

단(인격)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3-4)

## 기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만 쏟아 놓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6:2-13)